

2014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 (인문계)

모집단위		전형유형	일반학생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답안이 지정된 작성영역을 벗어난 경우 감점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한 경우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 라.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 마. 답안 수정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1>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본인이 속해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프랑스 숲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이 문명사회의 언어 표현이나 관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나 몸짓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소위 소셜 미디어적인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표현에도 서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웹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얼굴을 보고 수행했던 전통적인 면대면 의사소통에서와는 다르게 기계적 메커니즘에 어울리는 언어적 표현이 발생한다. 또한 언어적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했다 할지라도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미지나 각종 다양한 이모티콘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타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한다. 한편 언어심리학자들은 인지론적 관점에서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언어문화에 더 잘 적응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셜 미디어에 노출된 시기가 젊을수록, 즉 어려서부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경우일수록,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 방식을 더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이며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언어적 특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표현법 습득이나 적응 능력이 우월한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소통 능력도 탁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표현 방식이 굳어져 버린 기성세대보다는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어릴 적부터 소셜 미디어를 접하며 성장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 사이에서 고유한 언어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제시문 2>

매체의 결정적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매체는 수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일 뿐 수용자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주장은 현대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의 대표적 성과인 ‘선별적 노출(selective exposure)’ 이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이 이론은 개인 또는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은 각기 다른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지식과 신념을 갖고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서로 다른 지식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이용자는 매체가 전달하는 특정한 내용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매체의 내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내용을 선별적으로 배제할 것이므로,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매체의 내용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미 그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 지식과 신념을 갖춘 사람일 경우가 많으므로, 매체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기존의 지식과 신념을 더욱 강하게 할 수는 있겠다.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의 이와 같은 미미한 영향력은 매체의 영향력 자체를 결정짓게 된다. 매체는 항상 특정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미미한 영향력은 결국 매체 자체의 도구적 영향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제시문 3>

대표적 매체 이론가인 맥루언(H. M. McLuhan)은 “매체가 메시지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 보다는 매체의 독특한 특성 자체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구어 시대, 문자 시대, 인쇄 시대, 전기 전자 시대 등으로 구분한 그는 각 시대를 주도하는 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인간의 ‘감각비(sense ratio)’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인쇄 매체에 의존하는 사회와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에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은 다르다. 또 전자 매체는 지구촌을 조성하여 전쟁이나 재해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뉴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하고,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그는 특히 인쇄 매체와 전기 전자 매체의 등장을 전후해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한다. 문자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부족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말하고 듣는 청각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보다 감성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쇄술 발명

논술시험 (인문계)

이후, 인간의 감각비는 읽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시각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쇄 문화는 사람들의 인식을 선형적이고, 논리적이며, 범주적이게 만듦으로써 모든 환경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결국, 맥루언에 따르면, 매체의 형식과 구조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그러한 매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시문 4>

매체 수용자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체의 산물을 능동적으로 소비한다. ‘매체가 수용자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매체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매체 수용자는 항상 능동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존재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 적절한 매체를 선택해서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기분전환, 인간관계 형성, 개인적 정체성 확인, 환경감시 등과 같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느끼며, 이러한 욕구가 매체에 접촉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체를 이용하게 되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 만화를 보고 즐거움을 얻는든지,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사람이 현실 도피를 위해 오락 영화에 탐닉한다든지,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광고를 눈여겨 읽는든지 하는 것은 모두 수용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매체라는 도구를 소비하는 행위이다. 결국 매체는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단순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문제 2] 아래 <자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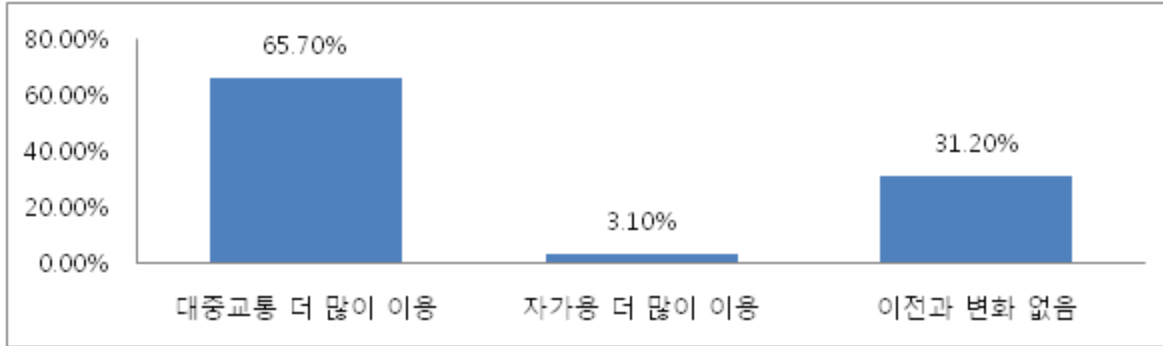
미국 워싱턴대학 정보대학원의 데이비드 레바이 교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자극-반응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특정 매체의 반복적인 사용이 인간의 인지작용을 담당하는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레바이 교수는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11세 초등학생 300명을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그 중 스마트폰에 노출된 정도와 현실 세계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반응 속도의 연관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구분	일정하게 깜박거리는 불빛에 맞추어 박수치기			일정하게 들리는 소리에 맞추어 발 구르기		
	너무 빠름	정확함	너무 느림	너무 빠름	정확함	너무 느림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 이용	39명	39명	22명	35명	35명	30명
하루 1-2시간 스마트폰 이용	21명	65명	14명	19명	70명	11명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음	14명	77명	9명	12명	81명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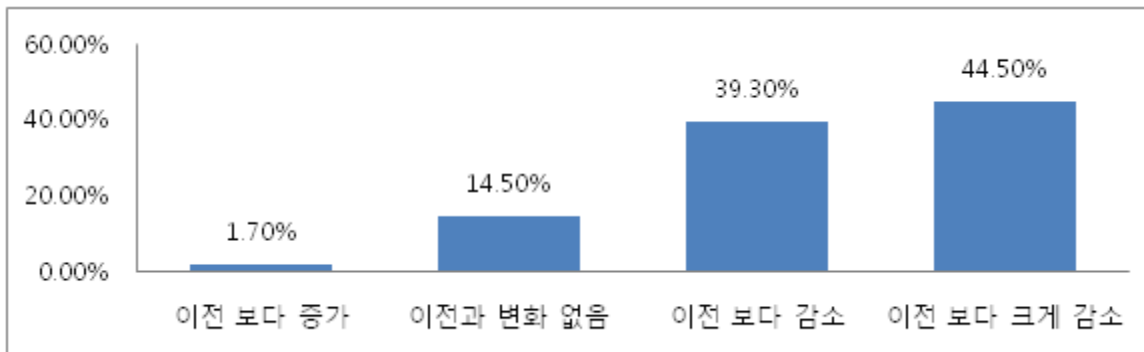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3] 아래의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자료들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것이 왜 그 입장을 지지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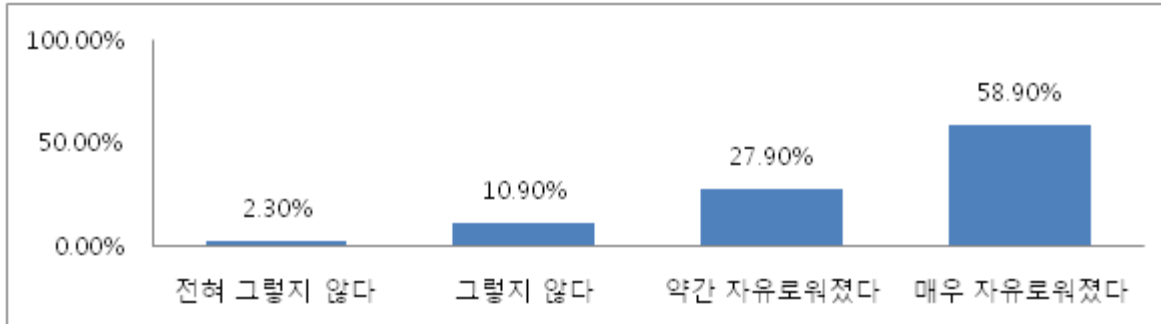
<자료 1> 노마딕 기기 사용 후 이동패턴 변화



<자료 2> 노마딕 기기 사용 후 종이 신문 및 책 읽는 시간의 변화



<자료 3> 노마딕 기기 사용 이후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정도



※ 노마딕 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 기기를 총칭하는 용어

[문제 4] ‘올바른 매체 문화 정착’의 관점에서 아래 <보기>의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에 근거해서, 논술하시오.

<보기>

파워블로거(Power Blogger)는 방문자 수가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 등 호응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말한다.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업체들이 해마다 블로거 중 상위 0.01~0.1% 이내에서 파워블로거를 선정한다. 이들은 고정 독자층을 형성해 ‘1인 매체’로 활동한다. 그것은 인터넷의 여론 지배력 때문에 기업들의 ‘입소문 마케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유명 블로거의 공동구매 알선이 큰 논란이 되었다. 150만 회원을 둔 ‘파워 블로거’ H씨가 안전성에 문제 있는 상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2억여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정보제공을 구실로 자신들이 가진 매체 영향력을 악용하는 파워블로거들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